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의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국제 정세 대한민국 중심으로 돌아간다

통일 이루려는 구세주의 원대한 계획 아래 전 세계 움직여

지금 세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정권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과 협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환원조작국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북한문제에 비답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열린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 회담의 주요 주제가 북한문제임을 볼 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인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혹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한반도 중심의 국제정세를 논하는 것은 단견(短見)으로 보인다. 지금은 서구열강이 특색하던 제국주의 시대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주체는 바로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 구세주는 인류 구원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구세주가 공산주의 소멸을 강력하게 원하여, 결국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것도 인류 구원의 작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이다. 1990년 공산주의가 멸망한 후 지구촌은 미소 양 강대국 간의 군비경쟁을 끝내고 국제평화의 기틀을 잡았다. 핵

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멸망한 후 이에 공감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많은 양의 핵을 폐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반발하여 끊임없이 핵개발을 해온 것이 북한이고, 최근에 핵능력이 미국분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역량에 이르렀으니 인류를 구원하려는 구원의 역사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이라 더욱 그렇다. 구세주의 인류 구원 사업에 있어서 현재 가장 위대한 인물과 정권은 북한이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대한민국도 구세주께서 다스린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말처럼 아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원가 뜻이 있어 점지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다. 사실 구세주께서 육신을 입고 하늘의 역사를 할 때에 승리제단 교인들은 구세주께서 점지한 사람이 없었으면 대통령의 당선되는 것을 보아왔다. 또한 세상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 구세주가 대통령을 점지하여 뽑고, 국

제정세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것은 인류 구원의 목적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많은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조종하는 것이다.

통일대통령이 못 된 김대중

구세주의 말씀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구세주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남북통일을 이루겠다고 하였다. 1997년 12월 2일 구세주 조희성님은 육중 면회 시 “김대중 총재는 이 사람(구세주)으로 하여금 하루 빨리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사람이라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구세주께서 김대중을 좋아해서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고 구원의 역사에 협조할 인물이기 때문에 뽑겠다는 것이고, 또한 김대중을 통일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김대중이 구원의 역사에 협조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통일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후 구세주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 결과 통일대통령도 되지 못했다(김대중 대통령 당선 비화 참조).

누구를 뽑을 것인가

19대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지금은 구세주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으로서 역사하시므로 광범한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지 알 수 없다. 과거 조희성 구세주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수많은 분신(分身)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한 사실이 있으므로(공산주의를 소멸시킬 때, 점지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때 사람 속에 분신이 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여 일을 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19대 대통령도 구세주의 뜻에 따라 당선이 될 것이다. 사실 구세주는 하늘의 역사, 즉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어느 무엇보다 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누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해나갈 때 과연 적임이 될 것인가를 대통령으로 점지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주었지만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다. 승리제단 교인들은 누가 인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적임인가를 고려하여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06)

“영생의 희망에 불타는 사람의 눈동자”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과 영생의 희망을 갖고 예배를 보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풍과 같은 더러운 심령 위에는 은혜가 절대로 안 내립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에 불타는 사람의 눈동자는 다릅니다. 이 사람 눈동자는 영생의 확신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똑바로 바라보면 자신 속에 있는 마귀

가 죽기 때문에 무서워서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이 있는 사람의 눈동자는 세상 사람의 눈동자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생의 확신이 깔려 있어야 되고, 영생의 희망이 불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세주와 똑같이 되어야 구원이지 구세주와 다른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경계에 처할 때 말씀을 따라라

말짐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짐은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길 수 있다. 승리제단 교인으로서 '이기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건 입술로만 하는 말짐일 수밖에 없다. 100% 말짐은 쉽지 않다. 오죽해서 조희성 구세주님께서도 죄인이셨을 때 인간으로서 아무리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애원하니 그때부터 자유율법을 100% 지킬 수 있었다고 하셨을까.

부딪혔을 때 따르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따르겠지만 말이지 못한 사람은 벌려 화를 낸다. 그렇다면 말짐하는 것은 논쟁이나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나'라는 것(자존심)이 나왔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순전히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율법을 범했느냐 여부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이지 타인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상대에게 "왜 말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바로 자유율법을 범(犯)한 것이다.

말짐은 최선의 구원의 길

사실 말짐은 구원 얻는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대개의 종교에서도 용어가 다를지라도 말짐을 말하고 있다. 즉 불교에서는 삼귀의(三歸依), 불법승 삼보(三寶)에 귀의(歸依)하라고 한다. 귀의(歸依)란 돌아가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므로 말짐하는 뜻이다. 불(佛)은 부처님, 법(法)은 진리, 승(僧)은 스님을 말한다. 부처님과 부처님이 설한 진리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님으로 삼보란 곧 진리이다. 따라서 삼귀의의 진정한 뜻은 '나'를 버리고 진리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열반경에서 불법승은 가짜 삼보이며, 미륵불이 진짜 삼보라고 말하고 있다. 석가와 불경과 스님들이 완전한 진리를 물었다는 의미이다. 불자(佛子)들이 진정 성불을 원한다면 미륵불에게 귀의를 해야 할 것이다. 미륵불은 조희성님이라고 열반경과 격암유록은 예언하고 있다.*

말짐은 구세주와 나만의 문제

누구나 살면서 어느 것이 자유율법에 맞는가, 하는 마음의 경계에 서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다를 때 과연 어떤 것이 자유율법에 맞는가, 스스로 묻게 된다. 문제는 실사 내 말이 맞고 상대가 아무리 틀린 말을 할지라도 그런 논쟁에서 화를 낸다면 자유율법에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경계(境界)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 비화

선거 전날 당선축하 메시지를 미리 보낸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15대 대통령이 된 데에는 숨겨진 비화가 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민당 총재로서 1992년 대선 출마 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하였다가 이를 반박하고 1997년 재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백중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투표함이 열리기 전까지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비화가 있다. 그 비화를 소개한다.



김대중 선거사무소에 이승성신이 내린 것을 보아 구세주께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을 방문했다. “김대중 대통령님 당선을 경축드립니다”라고 수를 놓은 용포(龍袍)를 가지고 갔다.

조금 기다린 후 2층에서 김대중 후보의 부인 이회호 여사가 와서 반기가 맞아 주었다. 이회호 여사에게 용포를 드렸더니 이 여사는 “어휴, 용은 마귀라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질색을 하기에 “중앙에서 용은 제일 높고 귀한 분을 상징합니다. 용상(龍床), 용인(龍鱗)이라는 말을 들으셨지요”라고 설명을 하였더니 그제야 “고맙다” 하면서 용포를 기쁘게 받았다. 용포를 펼친 후 글을 보더니 “아니 대통령선거가 내일인데, 아직 선거도 안했는데 대통령 당선을 경

축드린다니?” 정색을 하면서 의아해 하였다. 그래서 “저희 조희성 총재님께서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이 한국에 내신 정도령이신데 이 백성이 그분을 못 알아보고 탄압과 핍박을 가하고 있으며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이 정도령 탄압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오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이회호 여사는 좀 황당해 하면서도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는 말에 매우 좋아했다. 그러면서 백지이다 “용포 1점 접수함. 1997.12.17. 이회호.”라고 쓴 친필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하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 드리면

되느냐?”라고 물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면 제일 먼저 육중에 계신 조희성님을 찾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아휴,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난처해하였다. 그래서 “마음만 잡수시면 왜 안 되겠어요. 김대중 선생님이 틀림없이 대통령이 되시는 데 지금은 믿지 못하시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신 것이 확인이 되면 정도령님을 인정하시어 꼭 만나 뵙고 싶어서일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긍정적인 표정을 지었다.

김대중 후보 감격해 하다

그때 2층에서 김대중 후보가 내려왔다. 김상욱 회장이 김대중 후보에게 인사를 했더니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했다. 김 회장과 김대중 후보는 손을 꼭 잡고 한 동안 서로 농지를 앉았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한 상태에서 김상욱 회장은 “조희성 총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육중에 계시면서 금년 1월부터 이번엔 대통령은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내일이지만 이미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가서 당선을 경축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김대중 후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린다고 꼭 인사를 드러 주십시오” 하면서 악수한 손을 농지를 앉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정도령님을 찾아뵙지도 않았다.*

경축

아버지날

경축 예배 안내
일시: 5.8(월) 오후 1시
장소: 본부제단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리·역·사·바·로·잡·기·캠·페·인

승리제단 우리역사 바로잡기 운동본부
(연락처: 032-343-9981, 010-5583-4938)

왜, 단군민족의 뿌리역사를 밝혀야만 하는가?
뒤틀린 인류사를 바로잡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왜, 단군민족은 위대한 민족인가?
구세주를 낳은 민족이요, 인류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